

##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19 스탠리 큐브릭 전〉 전시 오픈

- ◇ 세계적인 거장 영화감독 '스탠리 큐브릭'의 작품세계를 전시로 재탄생 시킨 프로젝트.
  - 전시 기간: 2015년 11월 29일 ~ 2016년 3월 13일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휴관)
  - 전시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현대카드, 독일영화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관장 김홍희)과 현대카드(대표 정태영)가, 독일영화박물관과 함께 주최하는 전시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19 스탠리 큐브릭 전〉이 29일부터 관객들을 맞이한다.

서울시립미술관(SeMA)과 현대카드는 2012년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9 팀 버튼 전〉 개최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협업 전시로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19 스탠리 큐브릭 전〉을 선보인다.

서울시립미술관(SeMA)은 그 동안 순수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 영화, 디자인 등 미술 인접 분야를 지속적으로 다루며 현대미술의 확장된 개념을 소개해왔다.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는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에게 세계 건축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글로벌 핫 뮤지션 5팀의 한 달간의 릴레이 콘서트 '5 Nights II' 등 음악, 연극, 미술, 애니메이션, 건축을 넘나들며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오는 11월 29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영화 거장이었던 고(故)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작품세계를 전시로 재탄생 시킨 프로젝트다.

아시아 최초,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크게 세가지 테마를 가진 전시 공간으로 구성된다. 관객들은 스탠리 큐브릭이 사진 기자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영화 감독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을 다룬 '감독의 탄생', 스탠리 큐브릭의 경이로운 작품 세계를 연대기별로 정리한 '큐브릭 오디세이', 스탠리 큐브릭의 미완성, 미공개 작품들과 그의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담은 '큐브릭의 네버 엔딩 스토리'의 세가지 전시 공간으로 이루어진 전시장을 순서대로 관람하게 된다.

특히 스탠리 큐브릭의 자필 메모가 담긴 각본, 계획안 등 그의 완벽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자료들과 스탠리 큐브릭의 아내 크리스티안 큐브릭이 직접 그린 스탠리 큐브릭의 일상의 모습을 담은 회화 작품 등은 관람에서 놓쳐서는 안될 작품들로 손꼽힌다.

스탠리 큐브릭의 작품 세계를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 개막 행사도 마련된다. 스탠리 큐브릭 전의 전시 시작을 기념하여 내한한 스탠리 큐브릭의 가족들과 독일 영화 박물관의 큐레이터들이 함께하는 <큐브릭 토크(Kubrick Talk)>, 큐브릭의 대표 영화인 '시계태엽 오렌지'의 영화 속 한 장면을 재현한 듯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전시 <프리뷰 및 오프닝 파티(Preview & Opening Party)> 가 열릴 예정이다.

전시 관계자는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후대의 감독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또 그들의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오마주 되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감을 원천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1. 전시 개요

- 1) 전 시 명: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19 스탠리 큐브릭 전>
- 2) 전시 기간: 2015년 11월 29(일) ~ 2016년 3월 13일(일),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휴관
- 3) 전시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 3층
- 4) 관람 시간: 화-금 오전10시~오후8시  
 주말, 공휴일 오전 10시~오후6시  
 ● 뮤지엄데이 -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오후10시까지 연장
- 5) 티켓 정보: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에서 예매 가능  
 현대카드 결제 시 20% 할인, M포인트 결제 가능

| 티켓구분 | 개인                      | 단체<br>(20인 이상) | 비고   |
|------|-------------------------|----------------|--|
| 일반   | 13,000원                 | 11,000원        | -만 19세~만 64세   |
| 청소년  | 10,000원                 | 8,000원         | -만 13세~만 18세<br>-하사 이하의 군인 및 의무경찰  |
| 어린이  | 8,000원                  | 6,000원         | -만 7세~만 12세  |
| 특별권  | 6,000원                  |                | -만 65세 이상<br>-장애인(4~6급)<br>-미취학아동(만 4세~만 6세)<br>-국가유공자유족증 소유자<br>-독립유공자유족증 소유자<br>-의사상자유족증 소유자<br>-서울명예시민증 소유자 |
| 특별할인 | 일반가격의 20%할인<br>(특별권 제외) |                | -현대카드 결제 시<br>-다둥이 행복카드(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 무료권  | 무료입장                    |                | -만 48개월 미만<br>-장애인 1급~3급(동반 1인 포함, 복지카드 제시)<br>-국가유공자 본인<br>-독립유공자 본인<br>-의사상자 본인<br>-참전유공자 본인                 |

- 6) 도슨트 교육: 도슨트(전시설명)와 함께 30~40분 동안 전시장을 돌며 작품 앞에서

설명을 듣는 무료 프로그램.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6시 (1일 총4회 운영)

7) 주 최: 서울시립미술관, 현대카드, 독일영화박물관(Deutsches Filminstitut - DIF e.V. Deutsches Filmmuseum),

주 관: 지엔씨미디어

8) 문 의: 02)325-1077~8

#### [취재 문의]

서울시립미술관 변지혜 큐레이터

(02)2124-8928, bsjihye@seoul.go.kr

## 1. 전시 소개

### 1> 전시 의의

- a. 독일영화박물관(Deutsches Filminstitut - DIF e.V. Deutsches Filmmuseum)과 서울시립미술관, 현대카드가 공동 주최하는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19 스탠리 큐브릭 전>은 <롤리타>, <2001 :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계태엽 오렌지>, <샤이닝>, <아이즈 와이드 섯> 등을 연출한 영화 감독 스탠리 큐브릭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한 전시이다.
- b. 13세가 되던 해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카메라를 갖게 된 스탠리 큐브릭이 17세에 유명 사진 잡지사의 정식 사진 기사로 활동하며 촬영한 사진 작품부터, 그가 실제로 사용했던 영화 촬영 카메라, 가면, 의상, 조형물 등의 영화 속 촬영 소품, 감독의 자필 메모가 담긴 각본, 세트 모형, 탐 크루즈, 니콜 키드먼, 잭 니콜슨 등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한 촬영 현장을 담은 미공개 사진까지 총 1000 여 점에 이르는 작품을 선보이는 대규모 회고전이다.  
완벽주의자로 일컬어지는 천재 감독 스탠리 큐브릭의 면모를 세밀하게 담아내며 체계적으로 분류된 1000 여 점의 작품들은 영화계의 거장 스탠리 큐브릭이 예술계 전체를 통틀어 전설로 거듭나게 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 c. 스탠리 큐브릭의 부인인 크리스티안 큐브릭과, 그녀의 남동생이자 스탠리 큐브릭과 긴밀히 협력한 영화 프로듀서 얀 할란의 전폭적인 지원 및 워너 브라더스, 드림웍스, MGM, 유니버설 스튜디오, 소니-컬럼비아 픽처스 등 세계적인 영화사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본 전시는 2004년 최초로 기획되었다. 이후, 독일, 호주,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브라질, 폴란드, 캐나다, 멕시코 등 총 11개국의 13개 주요 도시를 돌며 전세계 관람객을 매료시킨 본 전시는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풍부한 전시 구성을 선보였고, 2015년에 비로소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로 한국 관람객들을 만나게 되었다.

### 2> 작가 소개

스탠리 큐브릭(Stanley Kubrick, 1928~1999)은 <롤리타>, <2001 :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계태엽 오렌지>, <샤이닝>, <아이즈 와이드 섯> 등 연출한 매 영화마다 심도 깊은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뛰어난 영상미를 구현했으며, 영화 제작 기술의 혁신을 일궈내, 그 이름 만으로 영화의 역사 그 자체가 된 거장으로 손꼽힌다. 1953년에 첫 장편 영화를 연출한 이후 생애에 걸쳐 13 편의 영화를 만든 그는 SF, 전쟁, 역사, 공포, 미래 사회, 인간 심리 등 주제를 불문하고 다양한 장르의 걸작들을 탄생시켰다. 스탠리 큐브릭은 사전 자료 수집에서부터 영화 개봉에 이르

기까지 철저히 계획한 것들을 반드시 실현시킴으로써, 전례를 찾아 보기 힘든 그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완성시킨 완벽주의자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리들리 스콧 (마션, 글래디에이터, 에일리언 등), 크리스토퍼 놀란 (인터스텔라, 다크 나이트 라이즈 등 배트맨 시리즈, 인셉션, 메멘토 등), 알폰소 쿠아론 (그래비티,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등), 조지 루카스 (스타워즈 시리즈 등), 제임스 카메론 (아바타 시리즈, 터미네이터 시리즈 등), 스티븐 스필버그 (ET, 쥬라기 공원 등), 매튜 본 (킹스맨:시크릿 에이전트, 엑스맨:퍼스트 클래스 등), 마틴 스코세지 (택시 드라이버, 좋은 친구들,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 등), 코엔 형제 (인사이드 르윈, 시리어스 맨,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파고 등), 그리고 팀 버튼.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 많은 감독들이 공통적으로 존경을 표하고, 자신의 작품을 통해 기꺼이 오마주하여 스탠리 큐브릭은 영화계의 전무후무한 전설이 되었다.

### 3> 전시 구성

스탠리 큐브릭의 작품 중, 국내에서 정식 개봉된 작품은 <풀 메탈 자켓>과 <아이즈 와이드 섯> 단 두 작품에 불과하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19 스탠리 큐브릭 전>에서는 그가 만든 최초의 영화를 포함하여 그의 모든 영화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전시는 그 이름 만으로도 독창적이면서 경이로운 예술 세계로 기억되는 스탠리 큐브릭이 남긴 발자취를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따라 살펴 본다. 그의 작품 속 주요 장면을 재현한 전시 공간을 구현하여, 일반 관객들이 그의 작품세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매니아 팬들에게는 그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 i) 감독의 탄생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기 전, 스탠리 큐브릭은 당대 유명한 사진 잡지사였던 룩 매거진, LOOK Magazine에서 사진 기자로 일했으며, 이 시기에 그만의 독특한 시각적인 테크닉을 발달시켰다. 이는 1950년대 이후 1999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가 남긴 혁신적인 성과물들을 탄생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세상을 보는 예리한 시선을 가지고 촉망 받는 사진 기자로 활동했던 그가 첫 다큐멘터리 영화 3편 및 최초의 장편 영화 <공포와 욕망>을 만들기까지 영화 감독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을 관객이 공유하도록 한다.

#### ii) 큐브릭 오디세이

주제와 장르를 불문하고, 작품을 거듭할수록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확립시켜 하나의 경이로운 세계를 이룩한 스탠리 큐브릭의 삶과 예술을 만나볼 수 있다. 사전 리서치 기록들, 각본, 다양한 제작 계획안 등 스탠리 큐브릭의 완벽주의적인 면모를 증명하는 각종 자료를 비롯하여, 그의 인간적

인 면모를 담은 촬영 현장 스냅 사진, 의상, 세트 모형 등 실제 영화 촬영에 사용된 각종 소품 등 방대한 수의 작품들이 영화별로 일목요연하게 전시 된다.

iii) 큐브릭의 네버 엔딩 스토리

스탠리 큐브릭이 가졌던 영감의 원천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그가 채 완성시키지 못했던 세 편의 작품과 관련된 미공개 작품들이 소개된다. 더불어, 스탠리 큐브릭의 아내 크리스티안 큐브릭이 직접 그린 그의 일상 생활이 담긴 회화를 통해 완벽주의자였던 큐브릭의 인간적인 면모를 만나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상과 음악을 철학적으로 완벽하게 접목시켰던 스탠리 큐브릭의 남다른 예술적 감각을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별도의 음악 감상 공간이 마련된다.

4> 대표 작품

- 별도로 첨부해 드리는 '프레스용 이미지'들을 확인 부탁드립니다.